

##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린도전서 3:18-4:5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신(자신의 생각, 감정, 열망)에 대해 많이 생각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만족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가 트위터에 올린 유명한 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선교사 정치가 딕슨 에드워드 호스트는 "잊히기 위해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억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대화로 돌아갑니다 (1:18-2:16). 그리고 그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룹니다:

- (1)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 (2)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앞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의 삶, 가족 또는 교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그의 구원 사역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사역이 영원토록 남을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건축자는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바울의 첫 번째 말씀은 명령입니다.

### 1.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3:18-23)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것은 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지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이익을 살피고, 담화에서 말을 잘하고, 사회적 계층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고, 그에 걸맞은 사람과 교류하고, 그렇게 함으로 사회적 지위를 올리게 합니다.

고린도인들은 주변 사회에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거나 소외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현시대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입니다. 학계, 정치, 의학, 기후 과학, 사회 과학, 신학 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영혼까지 팔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름 없는 무덤에 대한 질문만 하면 원주민 기숙 학교 거부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성별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면 편견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DEI 전략에 의문을 제기하면 인종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태아의 신성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면 여성 혐오주의자가 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저주 중 하나가 우리 시대의 지혜에 반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편리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부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다 (다음 세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에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불안한 이야기 중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3번이나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에서 반복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병의 말기에서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의 도시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기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편안해지자 바빌로니아 사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바빌로니아 사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은 소름 끼쳤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날이 온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열왕기하 20: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와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짚과 막대기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결국 늑대의 핏떡거림은 다음 세대에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다가올 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매우 분명합니다.

**a.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마십시오(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 a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또는 "하나님 안에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분, 위엄 있고 거룩하고 전능하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똑똑하다는 고린도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21세기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코람 데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람 데오는 라틴어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를 의미합니다.

"코람 데오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권위에 지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어디에서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찰력 있는 시선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은 없습니다"(R.C. 스프로울, 리고니어 사역).

이 진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욥기 5:13을 19절 후반절에서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에 그는 지혜로운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꾀,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영리함 속에서, 교활한 자들은 재빨리 입장을 바꾸고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20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시편 94:11에서 인용).

그들의 추론과 전략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악한 계략과 야망의 덫에 걸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지혜를 비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몇 주 전, 우리 몇 명의 목사들이 오타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앉았을 때, 한 의원이 "우리 사회는 태아, 정신 질환자,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노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주 동안 낙태를 제공하지 않는 임신 센터의 자선 단체 지위를 없애려는 법안이 제안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혜입니다.

다른 의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가는 길에 저는 하나님께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정치에 뛰어들 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별 이념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걱정됩니다. 통제 안 되는 의료지원 사망법 문제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왜 남편과 네 명의 아이들을 집에 두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야.'라고 속삭이셨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을까요?

세상에는 기독교인 교사, 의사, 간호사, 건설 노동자, 엔지니어, 변호사, 정치인, 예술가, 운동선수, 목사,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바울은 모든 것을 그에게 바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또는 "결론적으로"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에게서 확신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추구하는 일은 고린도에서 저명한 사상적 지도자들과 동일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 **b. 세상적인 확증을 추구하지 말라(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세 명의 하나님의 종,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었지, 그들이 각각의 지도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우리를 전도하거나, 제자로 삼거나,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사람들에 결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합니다. 우리가 인간 지도자나 어떤 사상운동에 자신을 묶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것을 스스로 빼앗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자랑하는 것은 교회 가족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인간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는데, 이는 사소한 말다툼에서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받은 것이 작고 제한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우리의 유일한 기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찾아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모든 것, 세상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축복, 하나님의 모든 선한 창조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의 모든 것, 죽음을 통한 모든 선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 있는 것, 미래의 모든 것, 곧 있을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모든 선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께 의해 세상에 보내진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1:29, 31).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마주하는 적대감이 실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은 것을 안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우리를 편협한 사람, 여성 혐오주의자, 가부장적인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해야 합니까?

"시대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일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복음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살고, 이 세대와 다가올 세대의 선을 위해 살고,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 오타와에서 한 의원이 말했듯이, "침묵은 동의입니다." 지금은 "시대의 정신" 앞에서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한 존재"로 머물 때가 아닙니다.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2:6-3:17에서 4:1-5로 주장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

## **2.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라(4:1-5)**

-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hyperetes)이라는 단어는 원래 선장의 지시에 따라 배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인의 명령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피라미드를 뒤집습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지위가 높은 교수나 학자들이 아니며,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종이며, 하나님과 그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

#### **a. 그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존중하라**

"청지기"라는 단어는 집안의 관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큰 책임을 맡았고 주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지시에 따라 운영을 감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 목사들이,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바울이 1절에서 복수형을 사용했기 때문에(13:2; 14:2 참조), 그는 아마도 핵심 복음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다른 진리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로마서 11:25; 고린도전서 15:51; 에베소서 3:4, 6; 5:32; 골로새서 2:2).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비밀"은 사람들이, 인간의 약함과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계시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단 2:18-19, 28; 엡 1:7-9). 이 서신에서 앞서 주장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역사 속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드러난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 오타와에서 우버를 불러서 저와 다른 목사 친구들과 공항에 갔습니다. 제 우버 앱에 나온 이름은 유수프였습니다.

유수프는 친절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의 새 이민자 신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중국 북서부 출신이라고 했지만(슬라이드) 저에게는 중국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과 외모를 보고 "위구르족 이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오타와의 작은 위구르족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가 히말라야 산맥에 접한 호탄 시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탄에서 기독교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 번도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수프가 덧붙였습니다. "제 주의 수도인 우루무치에 있을 때 거리에서 복음 전단지를 나눠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게 흥미로웠어요."

"유수프, 위구르족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는 놀랐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유수프, 저는 코란을 읽고 있어요. 인질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인질은 무슬림이 복음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유수프가 대답했습니다. "이맘은 코란, 인질, 타우라트에 대해 이야기해요. 인질을 읽으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요한복음, 즉 예수님의 삶에 나눌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좋은 화술이나 성공이 아닌 신뢰를 원하십니다. 청지기(맡은 자)로서 우리는 신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 나눔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11월 16일 토요일에 제이슨 퍼사우드와 함께 하는 전도 세미나(슬라이드)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 웹사이트에 등록하세요.

3-5절에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의도를 살펴보고 의심하는 인간의 경향에 대해 언급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말합니다 ...

#### **b.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일부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은 추가적인 계시를 주는 대신, 그들에게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더 깊이 파고들기를 권면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들에게 큰 달변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1:17; 2:3-4; 4:18-21).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영적인 효과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3a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의견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가는 한계가 있고, 신뢰할 수 없으며, 항상 변하고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의견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고린도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설교 후에,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든 비방하든, 인간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누가 뭐라든 꿈쩍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 삼 형제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 늑대가 나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사진). 늑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늑대에 따르면, 그는 할머니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던 중 설탕 한 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또한 매우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짚으로 만든 집에 갔을 때 문을 두드리고 "돼지야. 들어보내 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돼지를 부르는 순간 재채기가 나오는 것을 느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전에 재채기를 해서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평가는 변덕스럽고 성급합니다.

바울은 계속합니다.

3 .....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

그는 이미 인간의 의견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3절 a). 이제 그는 자신의 자기 인식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4절).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책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전히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올바르게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해석은 현혹시키는 말일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좋은 의견은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바로잡힐 때까지는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시편 51편; 139:23-24).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힘, 숨겨진 잘못, 마음의 의도, 경건하지 못한 충동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척하는 말로 우리의 악한 의도를 위장하여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4b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종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Coram Deo.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삽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생각과 의도를 분석하고,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신성한 불로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3:15).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성과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의 심판만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가는 오류가 있고, 변덕스럽고, 상대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만한 지침이 못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밝혀내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5b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3:8과 3:14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나의 참된 기초(예수님 자신) 위에 세워져 오래 지속될 자료로 조심스럽게 쌓았으며. 이제 그는 그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보상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결국, 중요한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뿐입니다. Coram Deo.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대의 정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령에 복종하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별 관념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그 지지자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시도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정치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지도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원 의원이었던 프레스턴 매닝의 말이 환영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지, 뱀처럼 비열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지혜를 따른다면, 우리는 비열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순결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 묵상 질문:

1. 누구에게 확증을 구합니까? 변화가 필요합니까?
2.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3.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소,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